



대테러센터, 출범 이후 최초로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(MOU) 공식 서명

- 「대한민국 대테러센터와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테러청 간의
대테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」 체결 -

□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6월 18일(목) 오후 인도네시아 보고르(Bogor)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대테러청(청장 : 에디 하르토노(Eddy Hartono))* 청사에서 「대한민국 대테러센터와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테러청 간의 대테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**」에 공식 서명하였다.

* 영문명칭: National Counter-Terrorism Agency(인니어: Badan Nasional Penanggulangan Terorsime: 약칭 BNPT)

** 영문명칭: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National Counter-Terrorism Center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Counter Terrorism Agenc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n Counter-Terrorism Cooperation

○ 동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△대테러 분야 법령, 정책, 정보 등의 공유 △인적 교류 및 공동 행사 개최를 통한 교류 증진 △양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강화 △정기적 공동 실무그룹 회의 개최 등이다.

□ 동 양해각서는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대테러센터가 외국 정부기관과 최초로 체결하는 양해각서일 뿐 아니라,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최근 대한민국 국민방문(3.31-4.1) 계기 발표된 「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성명」*의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.

* 공동성명 제7항: 양 정상은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비전통안보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, 테러 및 초국가 범죄 대응, 해양 안보 및 안전, 산불 예방·대응 등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. 양 정상은 이를 위한 「대한민국 산림청과 인도네시아 산림부 간 산불 관리 및 산불피해지 복원 협력 양해각서」, 「대한민국 산림청과 인도네시아 산림부 간 산림 분야 핵심 프로그램 협력에 관한 기본 약정」체결을 환영하고 「대한민국 대테러센터와 인도네시아

「대테러청 간 대테러협력 양해각서」 및 「대한민국 경찰청과 인도네시아 경찰청 간 치안 협력 양해각서」의 체결 추진을 환영하였다.

- 서명식 전 개최된 대테러기관장 간 면담에서 양 기관장은 “테러 대응은 이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글로벌 이슈가 된 만큼, 양국의 대테러 총괄·조정기관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”는 점을 함께 강조하면서, “기존 SNS와 드론, AI 등 새로운 기술의 테러 목적 악용 관련 사례와 대응 등에 관한 양국의 정책 및 경험을 폭넓게 공유해 나가자”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.

- 대테러센터는 앞으로도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대테러 총괄·조정기관과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테러리즘의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부 장	전창현 (02-2100-2032)
	대테러센터	담당자	서기관	조성현 (02-2100-2065)

